

2020년 4월 시청자위원회 (서면회의)

2020년 4월 29일 (수)

참석 : 김선재위원장, 권부남 부위원장, 박상민 위원, 김종남 위원, 양선희 위원

김선재 위원장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4/1 (수)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 요즘,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강연으로 구성되는 50분의 러닝 타임이 다소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어 보다 짧은 두어 가지의 주제로 편성해보는 것도 어떨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수요일 17시 30분은 또한 많은 시청자들이 TV보다는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인 만큼, 하루를 마무리 하는 늦은 저녁 시간대에 편성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4/26 (화)

김경섭 아나운서의 공백으로 새롭게 출연하고 있는 박종훈 아나운서의 진행에 신선함도 있었지만, 기존 출연진이나 프로그램의 분위기와 아직은 잘 어우러지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경림 아나운서의 의상에 비해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밋밋한 청자켓이 어울리지 않는 듯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출연진만큼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지만, 비슷한 복장이나 분위기를 위해 노력해 주시면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권부남 부위원장

<독전 2> 4/14 (화)

패션 크리에이터 <브로비>는 팔로우 650명을 가진 20대 패션 피플로 그를 만난 40대 패.알.못 박코디의 첫 만남에서 선택할 지를 고민하는 재미있는 구성이 재미를 주었는데, 청소년이 관심이 많은 아이템으로 선정되어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에서 박코디와 이코디가 새로운 유튜버들과 만남 속에 그들과 동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애쓰는 모습이 좋은 인상을 주었지만, 다소 산만한 느낌도 있어, 조금만 정제된 모습을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관심이 가는 주제인 유튜브와 패션을 담아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평가됩니다.

박상민 위원

<다큐에세이 그 사람> 4/18

<돌담 쌓는 남자> 에 대한 특이한 직업과 활동에 대해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특히, 주인공의 다양한 일상을 보면서, 제주의 멋진 풍광을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다만, 돌담보전회, 예술학교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어 의미있었으나, 돌담쌓기에 대한 보다 깊고 정밀한 화면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자막의 크기가 조금 작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전합니다. 이러한 진중한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높은 연령대 분들을 위해서는 자막의 크기가 좀 더 크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많이 제작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생방송 아침> 4/16 (목)

바다 향기 가득한 충남 서천으로 떠난 <날 따라와유>를 비롯해, <제주를 담은 청보리순차>, <봄맞이 청소열전>등으로 다양한 소재를 볼 수 있어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제작한 <날 따라와유>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해당 시장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다는 점과 배달 서비스 앱 개발에 대한 안내가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됩니다.

아쉬운 점은 보다 많은 바다를 보여주지 않은 점인데, 보다 시원한 바다 그림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침N퀴즈>가 끝나고, 사진 사연 주제에 대한 안내가 중간에 한 더 이루어져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방송을 위한 다양한 마음가짐이 보여 좋았습니다.

양선희 위원

<뉴스데스크> 4·15 총선 기획보도

‘총청이 민심이다’, ‘누가 뛰나’ 등 선거구별 후보와 주요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통해 쟁점 중심의 접근을 보여주며 단순한 판세분석을 지양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총선 관련 보도는 다소 부족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총선 보도 전담 기자 외에 인력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전MBC 여론조사 보도에서 정당, 남녀, 적극적 지지층의 지지율 등을 수치로 제시했는데 여러 후보들에 관해 수치만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예를 들면 대체로 정당 지지보다 후보 지지율이 높아 정당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등) 하지 않음으로써 데이터가 갖는 2차적 의미를 분명히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자체 여론조사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임

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지역 방송사 간 또는 지역 신문사와의 공동 조사를 통해 비용의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지역을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21대 총선 한 달 앞, 충청 이슈는?'이라는 주제 이후 총선 관련 3차례의 후보자 토론회를 포함해 총 7주 연속 총선 관련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총선은 중요한 정치적 이슈이자 이벤트이기도 하고, 지역방송의 역할이 기대되는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다양한 의제를 탐색, 발굴해야 할 책무도 중요한 만큼 좀 더 다양한 주제를 통해 지역 시청자를 포용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부분이지만 다양한 패널 확보를 통해 반복 출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라디오> FM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FM모닝쇼>, <정오의 희망곡>, <오후의 발견> 등 FM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고 참신한 시도로 청취자들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다양한 형식으로 지속 제작되어 프로그램의 홍보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청취자들의 관심과 화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교양 :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 요즘,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강연으로 구성되는 50분의 러닝 타임이 다소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어 보다 짧은 두어 가지의 주제로 편성해보는 것도 어떨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수요일 17시 30분은 또한 많은 시청자들이 TV보다는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인 만큼, 하루를 마무리 하는 늦은 저녁 시간대에 편성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선재 위원장)

답변 :

코로나로 인해 방청객을 배제한 상태에서 녹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문제는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단조로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다양한 장치를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시간대 관련해서는 서울MBC의 기본 편성 정책상 지역에서 임의로 편성 시간대를 선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양 : 독전 2

패션 크리에이터 <브로비>는 팔로우 650명을 가진 20대 패션 피플로 그를 만난 40대 패.알.못 박코디의 첫 만남에서 선택할 지를 고민하는 재미있는 구성이 재미를 주었는데, 청소년이 관심이 많은 아이템으로 선정되어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에서 박코디와 이코디가 새로운 유튜버들과 만남 속에 그들과 동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애쓰는 모습이 좋은 인상을 주었지만, 다소 산만한 느낌도 있어, 조금만 정제된 모습을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관심이 가는 주제인 유튜브와 패션을 담아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평가됩니다. (권부남 부위원장)

답변 :

<독전 2>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르가 된 유튜브를 소재로 다양한 인생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라는 한정된 공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인생과 그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소재를 찾기위해 제작진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의 산만함은 재미를 주기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으나, 다소 미흡감이 있습니다. 좀 더 세련된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교양 : 생방송 아침이 좋다 (4/26, 4/16)

김경섭 아나운서의 공백으로 새롭게 출연하고 있는 박종훈 아나운서의 진행에 신선함도 있었지만, 기존 출연진이나 프로그램의 분위기와 아직은 잘 어우러지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경림 아나운서의 의상에 비해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밋밋한 청자켓이 어울리지 않는 듯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출연진만큼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지만, 비슷한 복장이나 분위기를 위해 노력해 주시면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선재 위원장)

바다 향기 가득한 충남 서천으로 떠난 <날 따라와유>를 비롯해, <제주를 담은 청보리순차>, <봄맞이 청소열전>등으로 다양한 소재를 볼 수 있어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제작한 <날 따라와유>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해당 시장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다는 점과 배달 서비스 앱 개발에 대한 안내가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됩니다.

아쉬운 점은 보다 많은 바다를 보여주지 않은 점인데, 보다 시원한 바다 그림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침N퀴즈>가 끝나고, 사진 사연 주제에 대한 안내가 중간에 한 더 이루어져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방송을 위한 다양한 마음가짐이 보여 좋았습니다. (김종남 위원)

답변 :

생방송 아침의 새로운 진행자인 박종훈씨는 우리 지역의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베테랑 진행자입니다. 김경섭 아나운서와는 진행방법과 분위기에서 다른 면이 많아 최대한 새로운 진행자의 장점을 살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상의 문제도 제작진과 협의하여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 따라와유> 코너에서의 미흡한 점도 다음 제작시에 반영하여, 주제에 맞는 영상을 보다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정으로 모니터와 조언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4. 교양 : 다큐에세이 그사람

<돌담 쌓는 남자> 에 대한 특이한 직업과 활동에 대해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특히, 주인공의 다양한 일상을 보면서, 제주의 멋진 풍광을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다만, 돌담보전회, 예술학교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어 의미 있었지만, 돌담쌓기에 대한 보다 깊고 정밀한 화면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자막의 크기가 조금 작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전합니다. 이러한 진중한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높은 연령대 분들을 위해서는 자막의 크기가 좀 더 크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많이 제작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상민 위원)

답변 :

<다큐에세이 그 사람>은 MBC 계열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제작진에 대한 의견반영이 수시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정례적인 제작회의에 이러한 점을 전달하여, 다음 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보다 감동적인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소재 선정에도 보다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 보도 : 노정렬의 시시각각

'21대 총선 한 달 앞, 충청 이슈는?'이라는 주제 이후 총선 관련 3차례의 후보자 토론회를 포함해 총 7주 연속 총선 관련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총선은 중요한 정치적 이슈이자 이벤트이기도 하고, 지역방송의 역할이 기대되는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다양한 의제를 탐색, 발굴해야 할 책무도 중요한 만큼 좀 더 다양한 주제를 통해 지역 시청자를 포용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부분이지만 다양한 패널 확보를 통해 반복 출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양선희 위원)

답변 :

코로나19로 인해 깜깜이선거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이나 평가의 틀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 이번 총선 언론이 처한 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언론관련 모니터나 정책기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TV토론 등을 통한 시청자 정보 제공을 주문하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 다양한 패널확보는 시시각각이 끊임 없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6. 보도 : 뉴스데스크

'충청이 민심이다', '누가 뛰나' 등 선거구별 후보와 주요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통해 쟁점 중심의 접근을 보여주며 단순한 판세분석을 지양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총선 관련 보도는 다소 부족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총선 보도 전담 기자 외에 인력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전MBC 여론조사 보도에서 정당, 남녀, 적극적 지지층의 지지율 등을 수치로 제시했는데 여러 후보들에 관해 수치만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예를 들면 대체로 정당 지지보다 후보 지지율이 높아 정당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등) 하지 않음으로써 데이터가 갖는 2차적 의미를 분명히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자체 여론조사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입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지역 방송사 간 또는 지역 신문사와의 공동 조사를 통해 비용의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지역을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양선희 위원)

답변 :

여론조사의 경우 1,2위 지지도 순위매기기가 아닌 민심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활용,인용돼야 한다고 보고 데이터의 2차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합니다만 표본오차 범위내 지지율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 또한 데이터 해석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설계가 데이터의 신뢰성(회신율의 상대사의 3배 이상)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첫날 보도에 이어 둘째날 데이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 보도를 냈습니다. 공동 여론조사를 통한 광역데이터 취득에 대한 지적도 공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타사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늦어져 공동여론조사가 무산됐지만 추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7. 기타 : 라디오 프로그램 홍보

<FM모닝쇼>, <정오의 희망곡>, <오후의 발견> 등 FM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고 참신한 시도로 청취자들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다양한 형식으로 지속 제작되어 프로그램의 홍보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청취자들의 관심과 화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선희 위원)

답변 :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홍보는 지역 여론의 실시간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는 라디오 매체에 대한 지역민에 대한 홍보 강화의 목적으로 제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도 있지만, 프로그램별로 제작되어 방송되는 홍보광고가 신선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매체에서 지역민의 생각과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